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303호 [무계 제25081호] 주제 104 (2015)년 10월 30일 (금요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주체혁명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결정서

주체 104 (2015)년 10월 30일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소집할데 대하여

지금 전당, 전군, 전민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조선로동당창건 일흔돐을 강성변영하는 선군조선의 혁명적대경사로 빛내이고 백두산대국의 존엄과 위력을 만방에 떨친 승리자의 기세드높이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위한 총공격전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의 창건자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존엄높은 우리 당의 영원한 총비서이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밑에 우리 당은 수령의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 계승성이 확고히 보장된 주체의 혁명적당,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되었으며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 향도자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여왔다.

조선로동당은 장장 70성상에 걸치는 장구한 기간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로선과 원칙을 백년대계의 전략으로 틀어쥐고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여 우리 인민을 존엄높은 자주적인민으로, 혁명의 위력한 주체로 키우고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리상을 실현하는

주체의 사회주의를 건설하였으며 세기를 이어 계속된 제국주의와의 대결전에서 승리의 전통을 새기며 조국의 존엄과 자주권, 혁명의 전취물을 영예롭게 수호하고 이 땅위에 조국의 부강변영과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한 만년토대를 마련하였다.

오늘 우리앞에는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영원한 지도적지침으로 틀어쥐고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서 일대양양을 일으키며 우리 당을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당으로 더욱 강화발전시키고 그 령도적역할을 높여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야 할 무겁고도 성스러운 혁명임무가 나서고있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은 주체혁명위업, 사회주의강성국가 건설위업수행에서 세기적인 변혁이 일어나고있는 우리 당과 혁명발전의 요구를 반영하여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주체105(2016)년 5월초에 소집할것을 결정한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여러 나라에서 보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21일부터 23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로씨야의 따스통신은 김정은령도자께서 미래과학자거리를 돌아보시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미래과학자거리 주체성, 민족성, 독창성, 조형예술성이 조화를 이룬 최완한 거리라고 치하하시었다. 그리고는 미래과학자거리를 일찌미 건설자들에게 조선로동당의 이름으로 감사를 주시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령도자께서는 평양시를 선군문화의 중심지로, 모든 면에서 으뜸가는 융장화려한 세계적인 도시로 더 잘 꾸밀데 대하여 강조하시었다. 이란신문 《이란 뉴스》는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미래과학자거리가 조선로동당의 과학도시, 인제중시사상을 직관적으로 보여주고있다고 말씀하

시었다. 그리고는 불과 1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수천세대의 살림집과 150여개의 봉사망들을 갖춘 웅근 하나의 거리를 일찌미 세운다는것은 기건건설공범으로써는 상상도 할수 없다고 하시었다. 그리고는 최근년간 여러 과학연구기지들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다지고 과학자, 연구자들의 생활상제를 풀어주기 위한 사업에서 이룩된 성과와 경험에 토대하여 과학연구부문에 대한 실질적인 투자를 계속 높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시었다. 로씨야인리네트통신 가제다, 루, 무바의 브랜차 라파나통신, 만마통신, 일본의 교도통신, 체코신문 《쁘르스세우스가 브라브라》, 세네갈신문 《레 보르레르》와 나이제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전국위원회, 민주공고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 백두산체스프조선친선협회, 조선과의 친선협회 체스프지부 인터넷홈페이지, 도이쉴란트반제연단 인터넷홈페이지

《현지지도소식들》도 같은 소식을 전하였다. 이란신문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선인민군 제350군부대를 시찰하신 소식, 조선로동당장군 70歳경축 공훈국가합창단과 모란봉악단의 합동공연, 청봉악단의 공연을 관람하신 소식도 게재하였다. 로씨야, 민주공고, 도이쉴란드의 인터넷홈페이지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진문헌들을 보도하였다. 로씨야의 따스통신은 김정은령도자께서 새로 건조한 종합봉사선을 돌아보시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령도자께서는 배의 이름을 《무지개》호로 명명해주시었다. 그리고는 원형승강기를 배치하고 계단도 원형으로 시공한데 대해 잘했다고 평가하시

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령도자께서는 10월 10일전에 영업을 시작하라고 지시하시었다. 그리고는 종합봉사선 《무지개》호건조를 통하여서도 조선이 모든 영역에서 세계적수준에 올라설수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게 된다고 말씀하시었다. 로씨야신문 《로씨스카야 가제다》, 일본의 교도통신과 나이제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전국위원회, 민주공고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 인터넷홈페이지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새로 건설한 청봉악단을 현지지도하신 소식도 보도하였다. 나이제리아, 민주공고의 인터넷홈페이지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새로 건설한 청봉악단을 현지지도하신 소식도 올렸다. 민주공고, 도이쉴란드의 인터넷홈페이지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진문헌들을 보도하였다.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영상을 형상한 모자이크벽화를 여러 단위에 모시였다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영상을 형상한 모자이크벽화를 여러 단위에 모시였다. 모자이크벽화 《위대한 내 나라, 내 조국이여 천만년 무궁번영하여라!》가 광복메아리공장에 정중히 모셔졌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공산문화의 본보기단위로 내세워주시였으며 새 품종의 배아령을 많이 생산하여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보내주도록 손잡아 이끌어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들에 대한 끝없는 그리움을 안고 무산군 차유

리를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햇빛같이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내 조국의 찬란한 미래를 촉부해주시는 절세위인들의 자애로운 모습을 형상한 모자이크벽화를 모시는 사업에 지성을 다 바치였다. 락원기계연합기업소 락원산소분리공장에 모신 모자이크벽화는 대형산소분리기생산에서 공로를 세운 8명 당원들을 모소 만나주시고 온 나라에 높이 내세워주시며 락원의 로동계급에게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

리인 장근님의 승고한 사랑의 세계를 감동깊게 형상하고 있다. 여러 단위에 모자이크벽화를 정중히 모신것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과 혁명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갈 우리 인민의 드림있는 신념과 의지의 발현으로 된다. 모자이크벽화준공식이 해당 단위들에서 진행되였다.

위대한 장근님의 승고한 사랑의 세계를 감동깊게 형상하고 있다. 여러 단위에 모자이크벽화를 정중히 모신것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과 혁명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갈 우리 인민의 드림있는 신념과 의지의 발현으로 된다. 모자이크벽화준공식이 해당 단위들에서 진행되였다.

김정일대원수님 회고

배년사회주의당 위원회 결성

김정일대원수님 회고 배년사회주의당 위원회 결성

을 불려의 사회주의강국으로 건설하시였다. 그의 한생은 조국과 인민의 찬란한 미래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강그러 바치신 승고한 헌신의 한평생이였다고 격찬하였다. 배년사회주의당 부위원장 아그바훈표 유스맹은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지난 세기말엔 제국주의연합체력의 극단

한 반사회주의공세, 대조선압살책동에 맞서 선군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드시고 나라의 군력을 백방으로 다지심으로써 전쟁의 불구름을 물어내고 조선민족의 운명을 지켜주시었다. 그리고는 민족회대의 숙원인 나라의 통일위업실현에도 불멸의 업적을 쌓으시였다고 강조하였다. 결성식에서는 회고위원회

[조선중앙통신]

